

남겨 둬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신명기 24:19-22

19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20네가 네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21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22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1. 우리는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2026년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브릿지 오브 더 밸리 교회(Bridge of the Valley Church)에도 많은 사역과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을을 사계절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가을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은 학교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22년 동안 애리조나에 살면서, 뜨거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계절의 변화를 점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극도로 뜨거운 날씨가 그저 더운 날씨로 바뀌면서, 그래도 견딜 만한 날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을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특히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식료품을 슈퍼마켓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들은 잎을 떨어뜨립니다. 물론 이곳 애리조나 사막에서는 그 모습을 많이 볼 수 없지만, 대부분의 농업 지역에서는 가을이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가꾸었던 농작물을 거두어들이는 시기입니다. 옥수수, 콩, 밀, 보리, 목화, 감자, 양배추, 시금치, 사과, 배 등 수많은 농작물이 가을에 수확됩니다. 이러한 농작물은 농부들과 판매업자들에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수확물을 조금이라도 낭비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또한 농산물의 품질에 따라 각각 다른 판매처로 보내지게 됩니다.

여러분, 농업을 통해 식량을 수확하는 방식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유물이나 상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인간의 본성에 대해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특성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며,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그것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토마스 목사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비가 내리는 주일 아침에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그렇게 심오하지도 않은 문제를 너무 철학적으로, 너무 깊이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강조해 온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생각과 삶과 마음에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간과 소유물, 그리고 삶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비효율적이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AI)이 가져다줄 완벽함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과 부족함에서 비롯되는 실수를 제거함으로써 AI가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AI는 완벽한 전투기 조종사를 만들어 낼

것이고, 공장과 의료 시설 과정에서 낭비되는 에너지를 제거할 것이며, 정치 지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온갖 혼란과 불완전함을 제거함으로써 인류를 통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과 불완전함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는 것이며,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결국 AI가 인간의 모든 비효율성과 부족함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비효율성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면 어떨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한 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대에게 주어진 말씀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과는 다소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명령을 주십니다. 바로 "남겨 두라"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남겨 두라는 것이며, 이 명령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통해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4:19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 한 구절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잊어버리다'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농부들에게 수확물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남겨 두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굳이 '잊어버리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추수할 때 필연적으로 수확물의 일부를, 때로는 상당한 양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상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가지려 돌아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잊어버림'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샤카흐(נָשַׁח, Shakach)입니다. 이 단어는 '잊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더 이상 마음에 두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그 존재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물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샤카흐'라는 단어를 마음에 두고 지금 여러분의 집이나 별장에 있는 소유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지만, 그 존재조차 잊어버리고 있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986년, 필리핀의 대통령이었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와 영부인 이멜다 마르코스는 부정부패로 인해 국민들에 의해 권좌에서 축출되었습니다. 그들은 하와이로 망명하면서 궁전에 있던 대부분의 소유물을 남겨 두고 떠났습니다. 당시 이멜다 마르코스가 3,000켤레가 넘는 신발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3,000켤레의 신발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옷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신지 않은 신발이 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가방이 있습니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그 친구는 1966년형 머스탱 자동차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지만, 한 번도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그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소유물을 사용하여 '남겨 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물건을 팔아 그 수익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고, 그 물건 자체를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이들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샤카흐(Shakach)*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다른 이들을 위해 남겨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연약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특별히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셨을까요? 당시 이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계층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땅을 소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며, 그로 인해 사회적인 권력도 없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도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 두라고 하신 수확물은 아무에게나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과 비슷한 규모의 땅과 재산을 소유한 이웃 농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땅을 소유하고 추수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남겨 둔 수확물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먹고 남은 것을 아무렇게나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그것을 남겨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자신의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 머물고 있는 나그네들과 이주민들, 자신을 보호하고 부양해 줄 부모가 없는 고아들, 남편을 잃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인 과부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하는 자리와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복도 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기꺼이 순종하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는 마음을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보호하고 돌보려는 마음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모든 소유물을 기꺼이 남겨 두어, 그것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들을 세워 주는 도구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중요한 가르침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언가를 남겨 두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남겨 둔 것이 어떻게 전달되고 사용되는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2. 우리는 상대방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나누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존엄성을 지키며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24:19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신명기 24:20 “네가 네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신명기 24:21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이 모든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땅을 소유한 사람이 수확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준비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역시 그들을 위해 남겨진 수확물을 직접 와서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소유물을 다른 사람을 위해 준비하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 역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직접 와서 수고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그저 모든 것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스스로 일하여 여러분이 관대함으로 준비해 놓은 것을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나누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각자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재물과 재능, 그리고 소유물을 허락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얼마나 연약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또는 얼마나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불리한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나눔에는 두 가지 중요한 관계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확물의 일부를 남겨 두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 가는 과정에는 두 가지 중요한 관계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눌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나눌 때, 그것은 단순히 먹고 남은 것이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곡식 단과 감람나무의 열매, 그리고 포도는 모두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당연히 수확해서 가져갔을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들은 품질이 떨어지는 곡식이나 상한 감람나무 열매, 또는 먹을 수 없는 포도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품질이 좋은 수확물이었지만, 여러분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 남겨진 것입니다. 원래라면 여러분이 거두어 갔을 신선하고 좋은 농작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교회에 물건을 기부하면서 이미 낡고 오래되었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가져옵니까?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좋은 물건을 교회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보호시설에 헌물했던 것이 언제였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유물을 드릴 때, 또는 십일조를 드릴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먼저 취하기 전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도움을 받는 사람들 역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연약한 이들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몇몇 분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시티 호프(City Hope)의 중요한 운영 원칙 중 하나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식료품을 '쇼핑'할 수 있도록 식료품점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음식이나 식료품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이 직접 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가져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치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밭에 남겨진 수확물을 직접 거두어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 곁에서 함께하며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는 것을 돕고, 쇼핑 카트를 밀어 주기도 합니다. 쇼핑이 거의 끝날 무렵에는 옷도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그 옷들은 중고품이지만 대부분 새것에 가까울 정도로 상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이 끝난 후, 그분들이 원하신다면 함께 기도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공되는 모든 식료품은 새 제품입니다. 우리가 먹다 남긴 음식이나 여러분과 제가 마트에서 구매하지 않을 만한 물건들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시티 호프에서 봉사할 때마다 과자 봉지를 하나 뜯어 먹거나 게토레이 한 병을 열어 마시고 싶을 정도입니다! 물론 이 모든 물품은 기부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봉사자들 역시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식료품을 고르는 분들도 그 시간과 장소, 그리고 물품들이 모두 기부를 통해 제공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품을 주고받는 과정에는 분명히 상대방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농부가 열심히 수확을 준비하고, 그중 일부를 남겨 두어 연약한 이들이 직접 와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거두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나눔에는 받는 사람의 존엄성을 지켜 주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바로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자매들에게 보여 주어야 할 이러한 존엄성과 긍휼의 마음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존엄성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때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죄를 선택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하시며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긍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긍휼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에도,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에도, 서로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꺼이 남겨 두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나누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연약한 이들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남겨 두고 나누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지 선교지에서만 실천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의 세 번째 핵심으로 이어집니다.

3.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누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짧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특별한 농작물을 언급하십니다. 바로 곡식 단과 감람나무 열매, 그리고 포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특별히 이 세 가지 농작물을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식량이었습니다. 바로 곡식과 감람나무 열매, 그리고 포도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농작물은 모두 같은 시기에 수확되는 것이 아니라, 일 년 중 서로 다른 시기에 수확된다는 것입니다! 보리와 밀과 같은 곡식은 4월부터 6월 사이에 수확됩니다. 포도는 8월부터 9월 사이에 수확됩니다. 감람나무 열매인 올리브는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수확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본적인 농작물들을 남겨 두라고 특별히 명령하신 것과, 그 농작물들의 수확 시기가 모두 다르다는 사실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 년 내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남겨 두고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특정한 계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끊임없이 계속되며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 역시 언제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 년 내내 끊임없이 우리의 수확물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남겨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누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일회성 의무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들고, 그 일을 마치면 체크 표시를 하며 완료했다고 생각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보여 주는 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는 내 몫을 다했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다시 말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인생에서 그 일을 할 시기가 아니야." "지금은 내가 먼저 신경 써야 할 더 중요한 일들이 있어."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에 충분한 시간과 돈이 생기는 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충분한 돈이나 시간이 결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잊어버린 곡식 단이나 감람나무 열매, 포도를 남겨 두는 것은 분명히 연약한 이들을 돕기 위한 실제적인 나눔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에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기꺼이 남겨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토록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시간과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시간도 돈도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의 시간과 돈을 더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확물을 남겨 두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의 첫 번째 본능은 무엇입니까? 다시 밭으로 돌아가서 혹시 남겨 놓은 것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수확물이 있다면 다시 가져와서 팔고, 최대한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들에게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난 금요일 밤에 함께 읽었던 다윗의 아름다운 시편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1:1-3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돌보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단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은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만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만, 또는 수확물이 풍성할 때만 나누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 간증이 됩니다. 제가 가진 돈이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제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떤 계절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여러분의 것을 남겨 두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기꺼이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은행 계좌에 충분한 돈이 저축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모두 성장해서 독립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은퇴한 후에 더 이상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면, 그때 비로소 시간이 생겨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아직 무언가를 남겨 두고 나눌 준비가 되지 않았어." "하지만 내 삶이 조금 더 안정되고, 시간과 돈에 여유가 생기고, 나에게 편리한 시기가 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할 거야." 나눔은 나의 여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모든 이유들은 결국 핑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것을 남겨 두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충분한 돈을 저축한 후에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성장해서 독립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계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은퇴해서 시간이 많아질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삶의 상황이 시간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해 주실 것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역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 여러분의 것을 기꺼이 남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편리한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지금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섬기는 이유는 단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돕고 세워 주기 위해서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나누도록 부르심을 받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누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4.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누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도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24:22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한때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이었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돌보았던 것처럼 너희도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단지 육체적인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은 사회적으로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며, 교회는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그네는 자신이 머무는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알지 못하는 외국인입니다. 그들은 낯선 땅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고아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영적인 권위자로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육하며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없는 자녀들에게는 그러한 영적인 인도와 지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과부 역시 남편을 잃은 사람입니다. 가정의 아버지이자 영적인 권위자로서 영적인 보호를 제공하던 남편이 더 이상 곁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이른 나이에 사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우연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남성들이 조금 더 어리석고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인류가 오랫동안 전쟁을 벌여 온 존재이며, 많은 남성들이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잃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남성들이 더 많은 질병에 시달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에 저는 심장 전문의와 진료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있던 다른 환자들이 열 명 정도 있었는데,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심장이 약한가 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영적으로 길을 잃고 연약한 영혼들을 돌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라고 명령하시는 사람들은 단지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잃은 사람들,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 길을 잃은 영혼들 역시 우리가 돌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혼들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들은 바로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어 주는 다리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 주어야 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남겨 주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본문에 등장하는 보리와 밀의 곡식 단, 감람나무 열매, 그리고 포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농작물은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고 그들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며 힘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 주어야 할 것은 단순히 음식이나 농작물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강력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 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는 한때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한때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에서 종이었던 사실을 기억하며, 곡식 단과 감람나무 열매와 포도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남겨 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갔으며, 먹을 것조차 충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종이었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영적으로 회복시키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실 뿐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우리 역시 한때 죄의 종이였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돈, 그리고 모든 축복을 연약한 이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꺼이 남겨 둘 때, 우리는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그들에게 남겨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겨 주는 것을 통해 그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겨 둘'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귀한 선물을 남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이 우리가 연약한 자들에게 남겨 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남겨 주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축복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연약한 이들과 우리 뒤를 이어 살아갈 다음 세대의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남겨 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에 저희 가족에게 있었던 일을 하나 간증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저보다 여덟 살 어린 사촌이 이번 주에 저에게 연락을 해 왔습니다. 그 사촌은 현재 남편과 함께 생전신탁(Living Trust)을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 자신들과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저와 리나가 그들의 두 자녀를 돌보아 줄 후견인 역할을 맡아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제 사촌과 그 남편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단 한 번도 A보다 낮은 성적을 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울대학교를 졸업했고, 현재 미국에서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좋은 수입을 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인생에서 더 많은 기회를 누리고, 더 유리한 환경에서 살아가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이 잘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 주는 것이 단지 돈이나 집, 또는 우리가 소유한 재산의 전부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곡식 단과 감람나무 열매, 그리고 포도와 같은 물질적인 것들만 남겨 준다면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과연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남겨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그 세대를 지옥으로 향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과 브릿지 오브 더 벨리 교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돈을 기꺼이 남겨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남겨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남겨 놓은 것을 거두어 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고, 그 은혜와 긍휼을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눔질문>

1.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물질, 재능 중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무엇을 기꺼이 나눌 수 있을까요?
2. 나는 하나님을 섬기거나 이웃을 돕는 일을 여유가 생길 때까지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3.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4. 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 주고 있습니까?
5.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남겨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